전기차 느는데 … 지자체 보조금 천차만별

순천시 800만원, 광주시 700만원
울릉군 1200만원, 청주시 1천만원
환경부 올 1만4000대 보급 계획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 지역마다 크게 차이나 전기차 보급의 지역 편차가 심해질 전망이다.

30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개인이 전기차를 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차량 1대당 1400만원으로 똑같지만, 지자체 지원 보조금은 천차만별이다.

정부보조금에 지방보조금을 보태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43개 중 101개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에서 주는 것 외에 자체 예산으로 300만~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장 많이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경북 울릉군이다. 울릉군 주민이라면 본인이 1400만원만 부담하면 정부·지방보조금 2600만원을 합쳐 4000만원짜리 전기차(현대 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를 살 수 있다.

충북 청주시는 1천만원, 전남 순천시는 800만원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광주는 이에 못미치는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액수는 대부분 500만~600만원 선이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중에서는 경남 통영·사천·양산·의령 등이 가장 적은 액수인 300만원이다.

재정 여건과 관심 부족 때문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142개에 달한다.

지방보조금 액수와 전기차 보급은 정비례하는 추세다.

전기차가 가장 많은 '톱3' 지역인 제주(5629대), 서울(1498대), 경기(650 대)는 작년 지방보조금이 500만~7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세종(25대), 전북(57대), 충북(60대), 대전(74대)처럼 작년에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300만원만 지급한 시·도는 전기차 보급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고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다 보니 지역별 보조금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충전소 확충 등 전기차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전기차 보급사업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한편 보조금의 지역 편차 속에서도 전기차 보급은 급증하고 있다.

작년 말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총 1만855대로, 불과 5년 전인 2011년 344대와 비교하면 31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에는 현재 등록 대수를 뛰어넘는 규모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642억원을 들여 올해 1만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지역별 지원 현황 등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이나 통합콜센터(1661-09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전기차 판매 허용 대수 및 보조금

지역	신차판매수	지방보조금
제주	5746	600만원
서울	2600	450만원
대구	2000	600만원
경기	1257	500만원
전남	**549**	**800만원**
부산	379	500만원
인천	352	500만원
경북	258	600만원
전북	**218**	**600만원**
경남	217	300만원
울릉도	200	1200만원
강원	181	640만원
충남	119	800만원
충북	111	800만원 (청주1000만원)
대전	100	500만원
광주	**100**	**700만원**
울산	61	500만원
세종	23	700만원

〈자료:각 시·도 종합〉

기아차 '올 뉴 모닝'

한국 지엠 '스파크'

완성차 업체, 경쟁차 지명 맞짱 마케팅 활발

기아차 '올 뉴 모닝' 출시 "한국지엠 스파크 추월하겠다"
한국지엠 '올 뉴 크루즈' 출시 "현대차 아반떼 뛰어넘겠다"

"우리의 경쟁차량은 ○○입니다."국내 완성차 업체의 마케팅이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차 출시 행사에서 경쟁사의 모델 이름이 노출되는 일은 드물었다. 대놓고 화살을 겨누는 대신 'A사 N모델'이라고 점잖게 언급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차를 뛰어넘겠다"며 경쟁 차량을 직접 지목하는 일이 잦아졌다.

업계에서는 내수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 업체들이 고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기아차 '올 뉴 모닝' 출시 행사가 대표적이다.

기아차는 이날 경쟁 상대로 한국지엠의 스파크를 콕 짚어 지목했다.

기아차 모닝은 2008년 경차 기준이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로 바뀌면서 이 시장에 편입됐고 그해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스파크가 지난해 7만8035대가 팔려 7만5133대 판매에 그친 모닝을 꺾었다.

이에 뒤질세라 같은 날 열린 한국지엠은 "올 뉴 크루즈를 출시하면서 준중형급 최강자인 현대차 아반떼를 뛰어넘겠다고 노골적으로 타깃을 드러냈다.

아반떼는 지난해 9만3804대가 판매됐으며 2년 연속 베스트셀링카 2위를 차지했다.

크루즈의 경우 지난해 판매량은 1만847대였다. 한국지엠으로서는 판매량이 크게 앞선 아반떼를 경쟁 차량으로 지목함으로써 신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기아차 SUV 니로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굳이 쌍용차의 '티볼리'를 경쟁 상대로 꼽았다. 소형 SUV 시장을 선도하는 티볼리와 비교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겠다며 세계 최고 하이브리드 차량인 도요타 프리우스와 맞붙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예 차량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상위 차급 차량을 거론하는 일도 있다.

한국지엠은 올 뉴 크루즈의 경쟁 상대로 아반떼와 함께 쏘나타를 지목하기도 했다. 차체 크기를 키우고 사양을 강화했기 때문에 중형차와 경쟁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중고차 378만대 거래 '역대 최다'

SUV 인기 23% 차지
5대 중 1대는 수입차

지난해 중고차 시장이 2015년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366만대를 뛰어넘으며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이전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동차 이전 등록대수는 총 378만116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중고차 시장 규모는 2012년 328만4429대, 2013년 337만7084대, 2014년 346만8286대, 2015년 366만6674대로 해마다 규모가 커져왔다.

이처럼 중고차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는 데에는 중고차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품질이 향상되면서 중고차도 소비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돼가고 있고, 각 제조사의 이윤과 마케팅 비용이 더해진 신차를 구매하기보다 거품이 빠진 중고차를 선호하는 실속 있는 소비성향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경차부터 대형차, SUV까지 개인의 구매 목적이나 탑승 인원에 맞춘 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 신차 구매 때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한편 중고차 시장에서 해마다 수입차 매물이 점차 늘면서 지난해에는 5대 중 1대가 수입차였고, 여러 차종 중에서는 SUV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K엔카닷컴이 지난해 SK엔카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체 매물을 분석한 결과, 국산차 비중은 80.9%였고 수입차 비중은 19.1%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국산에서는 SUV가 23.0%를 차지했고 대형차(19.1%), 중형차(16.7%)가 뒤를 이었다.

수입차에서는 중형차가 32.0%로 가장 많이 등록됐고, 준중형차(20.4%), SUV(18.9%)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국산 SUV의 경우 높은 잔존가치로 중고차 시장에서 연식과 주행거리를 불문하고 인기가 높다. BMW 520d, 벤츠 E-클래스로 대표되는 수입 중형 세단은 수입차 시장 베스트셀링 순위권에 항상 이름이 올라 있다.

유종별로는 국산은 가솔린(53.7%), 디젤(33.9%), LPG(9.5%) 순으로 나타났고, 전기차 포함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은 1.2%에 그쳤다. 수입에서는 가솔린(51.1%), 디젤(45.6%), 하이브리드(1.7%)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중고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는 역대 최대의 중고차 거래가 이뤄졌다"며 "거래가 누적되며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상승하고 있고,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 서비스가 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위상 갈수록 추락

지난해 BMW 520d 7910대 팔려 3.5% 그쳐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베스트셀링 차량의 위상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때 수입차 7~8대 중 1대꼴로 팔리던 베스트셀링 1위 모델의 비중이 최근에는 100대 중 3대꼴로 뚝 떨어졌다. 이제는 국내 소비자도 많이 팔리는 차량이라는 이유로 우르르 몰려가며 구매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취향과 수요가 다양해졌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시장을 지배할 만큼 독보적인 사랑을 받는 모델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베스트셀링 차량이었던 BMW 520d의 판매량은 7910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 22만5279대 가운데 3.5%를 차지했다.

520d는 2013년 8천346대가 팔리며 베스트셀링카 왕좌를 차지한 이후 3년 만에 자리를 되찾았다. 2014년, 2015년 베스트셀링카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폴크스바겐 티구안이 '디젤 게이트' 여파로 판매가 중단된 덕을 톡톡히 봤다.

하지만 베스트셀링카로서의 위상은 크게 약화했다. 2012년(7485대, BMW 520d) 이후 베스트셀링카 판매량으로는 가장 적은 실적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수입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04년만 하더라도 당시 베스트셀링카인 렉서스 ES330의 판매량은 전체 수입차의 13.6%(3169대)에 달했다. 그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7~8대 가운데 한 대가 ES330이었던 셈이다.

이후 수입차 전체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베스트셀링카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소개되는 수입차 모델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특정 차종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062)224-4869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 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6·92 (육구이)
북구 우산동 중문로 33-1번길 (우산초등학교 후문입구)
간장숯불석쇠구이, 숯불구이, 석쇠숯불곱창
석쇠숯불막장 배달전문점
☎062)464-0692

맘스터치 빛가람1호점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중학교앞
단체주문 및 예약환영
"전화로 주문하시고 15분후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바로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061)333-2256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악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갤러리 봄
동구 예술의 거리 20-6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작품전시장
대표 최정화 ☎010-9078-1800

튼튼동물병원
동구 계림동 이마트상가1층
각종 백신 및 미용 중성화수술, 호텔
각종애완용품 취급 전문
☎062)511-7582, 010-3263-7582

한마음정육식당
북구 용봉동 159-9 (북구청 전대후문)
정육식당형 돼지고기전문점
돼지1마리(1kg) 37,000원, 돼지반마리(500g) 19,000원, 국내산생삼겹(250g) 12,000원
대표 김진표 ☎062)261-8292

우청미술관
동구 금남로2가 31번지
한국 채색화(만화) 연구소
대표 김생수 ☎062)383-8408

행복공인중개사
동구 중앙로 218번지
고객만족, 책임중개
대표 강인철 ☎062)225-3303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대풍쌀농산
북구 서방로 39번길 9-2 (중흥평화맨션입구)
일반미, 찹쌀, 보리쌀, 현미, 서리태
팥, 들깨, 녹두, 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열 ☎062)267-0101,010-3609-7117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강의내용 : 사주, 음권, 양권, 사주학, 수지침, 수족침, 이침)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